

대한민국 명장(名匠)의 작품 성향에 관한 연구 II - 목재수장 명장 1호 고(故) 조석진(1953~2013) -

김 정 호[†]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A Study on the Work Trend of the Republic of Korea Master Craftsmen II

- Wood head masters No.1 Cho Seok Jin -

Chung Ho Kim[†]

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314-701, Korea

Abstract: A South Korea master craftsman had the best technology that oneself and others are certified in various fields. ChoSeokJin coach has continued the lifeline of the Korean wood furniture Jeonbuk region. It is already famous coach to award-winning Olympic coach and tournament of the world. Check his mental world and his life through the work of ChoSeokJin coach. Through a harsh process until the Republic of Korea master craftsman, it was an opportunity to reaffirm once again the importance of effort and commitment. South Korea wood chief coach (the field of furniture) growth phase of the No. 1 ChoSeokJin coach, Ripe stage and spirit such as through his neck furniture fabrication methods, he is him then and the situation until the coach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d asked We look at the world. The work of ChoSeokJin coach by research analysis separately in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late, his hope and neck that is a topic that has been internalized "I want wings that can over time attach to a tree." In his work We understand the passion for furniture.

Keywords: Master craftsman Republic of Korea, Furniture production, Jeonju Chest, Wooden furniture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으로 예로부터 문(文)을 무(武)보다 숭상하고 문신을 무신보다 우대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사회에서 학력 보다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

고, 기능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능력 위주의 사회 풍토가 필요하다(김 2015).

1960년 후반부터 기능경기대회를 시작으로,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과 기능인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1989년 4월에 「기능장령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로써 기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기능전수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에 시작된 이래 2015년 현재 587명이 선정 되었고, 그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전파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묵묵히 그들의 일

2015년 6월 15일 접수; 2015년 7월 13일 수정; 2015년 7월 13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정 호 (chkim2@kongju.ac.kr)

에 종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명장 중 목공예·가구 관련 명장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성향을 소개함으로써 명장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작품이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 명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산업의 발달과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를 생활이 더욱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편안함은 힘든 일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대부분의 명장들의 작품 활동은 다품종 대량생산 기법이 아닌 소품종 소량 생산의 수공예 작업에 의존하는 순수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김 2015).

본 연구는 목재수장 명장 1호인 고 조석진 소목장의 지나온 환경과 작품의 특성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대중에게 그의 작품이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생전의 조명장의 모습과 이론자료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2. 조석진 명장의 생애

2.1. 성장기

지금은 고인이 돼 버린 조석진 명장은 1953년 11월 5일, 전북 완주군에서 농사를 짓는 조대곤(趙大坤) 씨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넉넉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특히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그러나 그가 9살 때 함께 살던 그의 작은아버지(당시 13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중상을 당했고, 할아버지마저 위암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번의 큰 변고를 겪고 나니 가세가 극도로 기울었다.

조석진 군은 1960년대에 완주군에 있는 용봉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는 집에서 10 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조석진 군은 6년간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결석 한번 없이 졸업했다.

조석진 군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한 또래의 친구

들은 모두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조 군은 가정형편상 기술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석진 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작은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에서 전주시내 전통가구 소목장으로 이름 높던 안은성 씨(1992년 작)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조 군에게 소목일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 군도 전통가구 소목 일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보면 깔고 다듬어 보고 뭇가를 만들어 놓는 손재주를 보였다. 그러던 그가 목가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열두 살 때이다(<http://www.onnlife.or.kr> 천년전주명품화사업단).

조석진 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6년간의 도제(徒弟) 생활을 통한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는 이 도제 생활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신이라고 여기며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추위가 다 가지지 않은 1966년 2월 17일에 소년 조석진은 6년간 보수 없이, 소목에 필요한 공구 한 벌을 받는 조건으로 당시 전주의 유명한 목가구 장인인 안은성 씨 문하생으로 입문을 한다.

그의 동기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6년 간 안은성 씨 문하생으로 묵묵히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처음 1년간은 아무런 배움 없이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안 씨가 작업하는 것을 어깨너머로만 볼 수 있었다. 안 씨는 조 군에게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구 잡는 법과 간단한 실습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다. 모든 도제 생활이 그러하듯 스승의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다. 더군다나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에는 더욱 힘들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러나 조 군은 조금이라도 빨리 익히려는 마음에 다들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연습을 반복하곤 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난의 힘든 도제 생활 끝나자 안은성 스승은 6년간 고생했다고 하며, 조 군에게 약속한 공구 한 벌을 주었다. 결국 조석진 씨는 안은성 선생에게 사사(師事) 받은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6년간의 도제 생활을 마칠 무렵 조 군은 그간에 배운 기술로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래서 조 군은 자신이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어 보고 싶어 했다. 때마침 1971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능올림픽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었다. 조 군은 이 대회에 출전해 그동안 습득한 기량으로 최선을 다 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그의 실력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이듬해인 1972년 제2회 전북 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계기로 1973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년간의 힘든 훈련의 길로 들어섰다. 2년간 각고의 노력 후 197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2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가구분야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선수로 국제대회 가구분야에 우승하는 첫 번째 기능인이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당시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기능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금메달 이상의 것이었다. 그 당시 조석진 씨의 금메달 수상으로 “...우리가구 업계의 앞날을 밝혀줄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 이로서 그는 장인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셈이었다.

국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오니,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그 당시 이 금액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한 금액이었다. 또한 국내의 굴지의 가구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부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낡고 자란 고향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었고, 그곳 전주에 있으면서 전통가구를 지향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구를 만들며, 후학을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 명장은 마음속으로 40세까지는 기반을 다지고, 그 이후에는 좋은 작품에 전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과 명예가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

2.2. 완속기

조석진 씨는 목재 공예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만 출전할 수 있는 1988년도 제1회 명인대회(명장 선정대회)에 가구, 창호, 건축, 목공까지 포함한

목재 수장분야에 출전해 이 부문 최고의 기능인임을 재확인하면서, 이 분야 국내 최초의 명인인 가구분야 1호 명장에 선정된다.

이때부터 조석진 명장은 후배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전주에서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를 발굴해 입상시키는 지도력을 보였다. 1999년 캐나다 몬트리얼과 2001년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2003년 스위스 장크트갈렌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 3개 대회 모두 대한민국선수단이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1998년, 마침내 장인에게 가장 큰 명예로 여겨지는 (전북)무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됐다.

전주, 남원지방의 목가구들은 한국 전통 목가구 중에서도 재료선택과 짜임새, 금속장식 등이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석진 명장은 이른바 조선 목가구 가운데 전북지역의 명맥을 이어왔던 안은성, 조갑곤, 조석진으로 이어지는 전통공예의 원형을 간직한 인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과 명장대회의 수상실적으로 이미 전통 공예계에 이름을 드러낸 명인이다. 조석진 명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5년 우리나라 최초로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목재수장 가구분야 명장 1호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다(천년전주명품화사업단).

조석진 명장이 제작한 가구들은 건조 상태가 좋으며, 널결이 아름다운 느티나무 판재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되어 보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목상감은 아자문(亞字文) 및 거머리(금속장식)를 목상감으로 문양을 파고 넣는 기법이다. 특히 목재로 상감한 거머리 장식은 종종 금속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정교하다. 조 명장은 주로 삼층장, 농, 문갑, 흑단상감좌경대 등의 전승가구를 그만의 기술로 재해석하여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한평생 장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눈질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바라보며 살아온 힘든 세월과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갈등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그의 힘든 과거를 생각하면 외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를 진정한 장인으로 만들어 주는 밑거름인 것이다.

전통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있고, 한 민족 한 사회가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되며,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그 나라의 의식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은 그 자체가 보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때때로 불편도 하고, 비합리적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 장인 정신이다. 조 명장은 나무와 호흡하며 살아오며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하곤 했다. “많은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높이겠다는 욕심은 없다. 섬세하고 예술미를 사랑하는 전통공예와 함께 장인정신을 후세들에게 전하고 싶고, 나보다 더 뛰어난 가구를 만들 재자를 양성하고 싶다.”라고...

조석진 명장은 전통가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했으며, 앞으로의 그가 추구하는 가구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생각 하에 전통목가구의 현대화를 목표로 연구를 계속했다.

조석진 명장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전북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가구)/전국 기능경기대회 금메달(가구)/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상/스페인 국제기능경기대회 금메달(가구)/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 수상/기능 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대한민국 목재수장 명장 1호(제10호)/국무총리 표창/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장 및 심사위원/전북 도민의 날 영광의 얼굴. 자랑스런 신한국인 선정/전북 무형문화재 제19호(소목장)/제35회 캐나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선수단 지도위원(2011) 등을 역임했다.

2.3. 조 명장의 목가구 제작방법

가구 명품이란 좋은 나무를 만나면서 더욱 수려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 색깔이라든지 결, 성질 등 재질을 제대로 알아야 쓰임새가 좋은 재목을 얻을 수 있다. 즉, 명품이란 좋은 재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목을 얻었다 해도 명인을 만나지 않으면 한낱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작품을 하나 완성시키자면 수천 번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고, 나무 하나하나마다 보석 다루듯이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조석진 명장은 가구를 제작함에 있어 느티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했다. 느티나무는 아름다운 무늬결과 고유의 향 그리고, 질감과 깊이 있는 목재의 색깔까지 목가구의 얼굴이 되기에 안성맞춤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재로 사용할 잘생긴 느티나무를 구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별채가 금지되어 있고 적어도 오백년 이상 된 것이라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받기 때문이다.

가구의 내장재로는 실용적인 오동나무로 뒷면과 밑면을 만들고, 느티나무 외에도 붉은색이 고운 참죽나무, 감나무의 심재가 오래되어 검은색으로 물이 들어 걸은 하얗고 중심부분은 검어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 놓은 듯한 무늬를 자랑하는 떡감나무 등을 주로 사용한다.

나무를 구하고 나면 공구를 준비하는데 톱, 대패, 끌 등 기본적인 도구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문양을 내기 위한 도구는 직접 제작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가구는 모두 짜 맞춤 가구라 못은 장식을 박는데 이외에는 전혀 쓰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대나무를 갈아 못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접착제가 더욱 중요하다. 접착제는 민어의 부레를 고아 만든 부레풀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접착제 자체가 신축작용을 하여 가구의 생명을 100년 정도는 거뜬히 지켜 주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 12차 장롱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3개월. 장마철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 1년 내내 허리를 펴지 않고 작업을 해도 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작품은 3점 내외였다(천년전주명품화사업단).

조석진 명장이 생전에 주로 만들었던 가구는 안방에서 사용되는 좌식경대, 2층 또는 3층장, 문갑, 경상, 버선장 등이었다. 그러나 조 명장이 가장 즐겨 제작했던 가구는 좌식경대와 3층장이다(Figs. 1, 2).

경대는 거울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서랍을 갖추어서 화장품, 빗, 빗치개, 뒤꽂이 등의 화장도구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안방의 여주인이 몸단장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소품가구이다. 경대는 앉아서 볼 수 있게 경사지게 만든 거울이 천판 뒤에 부착되어 있으며, 화장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두게 만들었다. 대부분 동양에서는 좌식을, 서양에서는 입식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대라고 하면 좌식의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Fig. 1. Legless vanity (Cho Seok Jin Work).



Fig. 2. Three Chest (Cho Seok Jin Work).

머리장은 이름 그대로 머리맡에 두고 옷이나 그 밖의 물건을 넣기도 하고, 천판 위에 문방가구나 일상 용품을 올려놓고 사용하였으며, 일반장보다도 키가 낮고 폭이 좁다. 천판은 경상의 두루마리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상단에는 4개의 서랍이 있으며 박쥐형 장식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쇠목과 동자 부분에는 먹감나무로 제작한 거멸형 장식이 상감 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견고함을 갖게 한다. 다리 부분의 풍혈은 위로접어 올린 천판과 천판 아래 달린 운각과 조화를 이룬다(Fig. 3).

조 명장이 애정을 가지고 제작했던 또 다른 하나는 이층농이었다. 장과 농은 안방의 주된 가구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옷가지들을 보관하던 가구류이다. 외부의 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장과 농은 원래 그 형식이 다르다. 각층이 층별로 분리되면 농이고, 층널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으로 붙어 있으면 장이라고 한다. 장은 분리되지 않으나 1, 2, 3층으로 구획되며 많은 힘을 받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굵은 기둥



Fig. 3. Head Side Chest (Cho Seok Jin Work).



Fig. 4. 2nd floor Closet (Cho Seok Jin Work).

과 두꺼운 판자로 양 측널을 구성한다. 반면에 농은 각 층이 분리되므로 기둥보다는 얇은 판재로 짜여 있고, 이층농이 대부분으로 운반과 관리에 편리하다. Fig. 4의 이층농은 느티나무가 주재료로서 상단의 1칸은 4등분하여 서랍을 만들고, 금속의 투각 ‘ㄷ’자형 들쇠를 달았다. 전면 복판의 여닫이문판은 느티나무 용목으로 판재를 쳐서 좌우대칭이 되게 배치하였다. 또한 1층과 2층의 상하의 쥐벽간도 복판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게 느티나무 널결을 사용하였다.

조석진 명장은 생전에 “좋은 나무를 구입해 집에 가져올 때는 그 무늬가 아름다워서 그냥 벽에 걸어두고 싶을 정도예요. 그 무늬에 도취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죠. 도인이 도를 닦으면 세상 물정을 알고 싶지 않듯이 만져 보고 또 이런 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목재가공 과정에서 대패질로 깎여져나가는 것이 아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목재는 걸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도 걸보기와 속보기가 다르듯이 목재도 서 있는 목재는 베어 놓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걸은 멀쩡한데 베고 보면 썩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Table 1. The First Half of the Works of Masters Cho Seok Jin

작품의 명칭/재료	작품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작품 내용
머릿장 (느티나무, 오동나무, 금구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릿장은 말뚝 그대로 머리말에 두고 옷이나 그 외 기타 물건을 넣어 보관하는 장으로 용목의 느티나무에 복판의 문판은 무늬결을 좌우대칭으로 사용하였고, 나비형 앞바탕과 나비형 경첩을 좌우 3개씩 6개씩 배치하였다. 천판 바로 밑에는 4개의 서랍이 있으며 각각 박쥐형 들쇠가 달려있다. 구조는 쇠목과 동자 부분에 먹감나무로 제작한 ‘ㄱ’자 새발장식을 상감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견고함을 느끼게 한다. 천판의 끝부분은 위로 살짝 치켜들어 가구 전체가 역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다리부분의 풍혈은 천판 아래 좌우에 달려 있는 운각과 조화를 이룬다.
이층농 (느티나무, 오동나무, 금구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명장이 애정을 가지고 제작했던 전주지방의 명백을 이을 가구 중에 하나인 이층농이다. 이 농은 윗 층의 문판은 좌우로 열리나 아래의 문판은 상하로 열리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아래 층의 쥐벽간도 좌우대칭 되게 제작되어 있다. 느티나무가 주재료로서 상단의 1칸은 4등분하여 서랍을 만들고, 금속의 투각 ‘ㄷ’자형 들쇠와 전주장 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은회색의 금구장식을 사용하였다. 전면 복판의 여닫이문판은 느티나무 용목으로 판재를 켜서 좌우대칭이 되게 배치하였다. 또한 1층과 2층의 상하의 쥐벽간도 좌우대칭으로 느티나무 널결을 사용하였다.
삼층장 (느티나무, 오동나무, 먹감나무, 금구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삼층장은 언뜻 보기엔 몸체가 분리되는 농처럼 보이나 측널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다. 이 장은 아래 위 삼층으로 구획되며, 무게에 대한 하중을 위하여 굵은 골재와 두꺼운 판재로 양쪽 측널이 구성되어 있다. 복판의 문판은 느티나무 용목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경첩, 자물쇠앞바탕, 자물쇠, 들쇠, 새발장식, 귀장식, 광두정 등 모든 금구장식을 검은색의 금속을 사용하였고, 거말감잡이는 먹감나무로 상감하였다. 3층의 하단부에 4개의 서랍을 배치하여 각각 활형들쇠를 달았고, 2층과 3층의 여닫이문은 좌우로 각각 열리고, 1층의 여닫이문은 상하로 열리고 닫힌다. 이 삼층장 역시 문판, 쥐벽간 등이 복판을 중심으로 느티나무 용목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전주장 (느티나무에 옷칠, 오동나무, 금구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장은 과거 양반가에서 손에 꼽혔던 가구 중 으뜸이었던 전주장을 재현한 것이다. 서랍장과 옷장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이 가구는 실용미가 돋보이는 맞춤형 가구로 의복이나 책을 보관하는 공간과 귀중품을 넣어두는 서랍장이 결합해 하나의 장에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주장의 특성은 아름다운 자연 무늬결을 그대로 사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주장은 전통맞춤기법과 함께 다리, 배판, 문짝, 서랍 등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곳은 장부맞춤으로 맞춘다. 상층의 아랫부분에 4개의 서랍과 활형들쇠를 달았다. 중간부분은 널결의 좌우대칭 여닫이문으로 둥근 자물쇠앞바탕으로 문 좌우의 경첩과 형태를 같이 한다. 하단부의 4개의 서랍의 손잡이는 천도형(天桃形)고리를 달았다. 다리 밑에 족대를 설치하여 장의 전체적인 안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To be continued

Table 1. Continued

작품의 명칭/재료	작품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작품 내용
좌식 경대 (느티나무, 떡감나무, 오동나무, 금구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의 여주인이 몸단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소품가구인 경대는 거울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서랍을 갖추어서 화장품, 빗, 뒤꽂이 등의 화장도구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경대는 앉아서 볼 수 있게 경사지게 만든 거울이 천판 뒤에 부착되어 있으며, 화장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두게 만들었다. 전면의 여닫이문의 경첩은 좌우 측널판에 부착하여 쓰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아래의 두 개의 서랍은 박쥐형 들쇠를 달았고, 전면 좌우에는 각각 7개의 거말감잡이를 떡감나무로 상감하여 시각적 견고함을 느끼게 한다.
문갑형 서랍장 (떡감나무, 참죽나무, 오동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랍이 4개 달린 문갑형 서랍장으로 천판과 좌우측판은 한 나무가 이어지게 결을 맞추어 제작했다. 앞의 4개 서랍 역시 한판의 나무를 4등분하여 서랍의 앞판으로 사용하여 떡감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서랍장의 전면과 후면 그리고 족대는 참죽나무를 덧대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구조를 목재의 색상으로 보완하고 있다. 서랍의 내부는 오동나무로 처리하여 가구 내장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좌우의 다리는 서안에서 보이듯 족대 위에 풍혈을 투각하였다.
좌식 테이블 (떡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이 들어간 떡감나무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목재이다. 이러한 나무로 만들어진 이 테이블의 용도는 소파 앞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소파용 테이블이 적당하다.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여 걸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천판과 다리의 구조는 숨은 주먹장 연귀맞춤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다. 테이블 상판은 바닥에 먹을 부어 놓은 듯한 떡감나무의 문양이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나무는 절대 구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목재를 다루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 좋은 목재를 발견했을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리라 생각한다.

조 명장은 목재 구입 후에는 1차 가공한 다음 그의 집 옥상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1년간 방치해 놓는다. 이렇게 목재를 자연 상태에서 건조한 다음 제재를 하고, 다시 벌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3년 이상 건조해 재단에 들어간다. 작품에 주로 쓰이는 나무는 느티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백송 등이다. 이러한 목재는 최소한 1백년 이상 나이를 먹은 것이라야 그는 가구재로 사용하며, 나무마다 고유의 무늬가 있어 이 무늬를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 재생시키느냐에 따라 목가구의 생명이 좌우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생전에 그가 사용했던 공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 시절 처음으로 일 배우러 들어가 안은성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공구를 가장 소중히 간직했었다. 그 공구 중에 가장 아꼈던 것은 스승님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다가 조 명장에게 물려준 면치기 대패였다. 이 대패는 각 부분의 곡선을 만들거나 나비의 선을 내고, 두 선을 깎을 때 그리고, 각종 문양을 만들 때 등 특이한 기법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대패다.

조석진 명장은 목재를 고르는 현안과 기다릴 줄 아는 건조과정을 거쳐 정교한 장인의 기술로 나무를 마름질해서 이미 수명을 다한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하나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우리나라 주택의 실내는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해 따뜻하고 건조하다. 나무는 습기가 많으면 팽창하고, 따뜻하고 건조하면 수축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통 목가구는 나무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가구의 손상에 대비해서 못이나 접착제를 거의 쓰지 않고 뼈대에 알판을 끼우는 특수한 맞춤기법을 사용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나무 못을 쓰거나, 장식에 박는 못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못을 사용을 자제했으므로, 조 명

장이 만드는 가구 또한 전체가 전통 짜맞춤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랍의 경우는 잘 빠지지 않는 주먹장 맞춤이나 사개물림 등 각 부분이 전부 장부맞춤으로 제작되어 있고, 힘을 많이 받는 기둥에 들어가는 부분은 쌍 장부 축으로 끼워 맞춰 하중을 분산하였다. 맞춤을 조립할 때는 우리의 전통접착제인 민어의 공기주머니 부레를 말려두었다가 물에 넣어 끓여 만든 부레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교보다 교착력이 강하고 탄력이 좋아 목재가 변형됨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천연 접착제이다.

조 명장이 사용하는 기법은 가구 전면의 무늬의 좌우대칭은 기본이고, 특히 전면의 아름다운 무늬결 옆의 테두리 부분은 전통기법인 아(亞)자 문양 또는, 색이 다른 나무(먹감나무)를 활용한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그만의 독특한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예부터 곡창지역인 호남지방은 부유해서 양반네들이 좋은 목재를 구해 놓고 장인을 사랑체에 모셔다가 숙식을 제공해가면서 가구를 제작했다.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적인 여유로 풍류를 즐겼던 만큼 아름답고, 장식도 화려한 가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전주, 남원지방의 목가구들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 중에서도 재료의 선택과 맞춤기법, 비례미, 금속장식 등이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라도 지방은 느티나무가 풍부해서 가구에 사용된 목재의 색상, 나무의 질감, 무늬 결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화려한 가구들이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양반네 가구는 일반 서민에 비해서 목재도 좋아서 느티나무, 감나무, 홍단풍 등을 가지고 전통상감기법으로 제작했다.

3. 조석진 명장의 작품

3.1. 전기(Table 1)

호남지방은 예부터 소목기술이 발달해서 목가구가 유명세를 탔다. 그중에서도 전주는 조선조 때 관찰사가 있던 지역이라 관리들도 많았고, 전주 이 씨의 고향으로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또한 이 지역은 넓은 곡창지대로 부호들이 많아서 타 지역에 비하여 가구의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공예 역시 발

달했었다. 여기서 제작된 전주장은 고급목재와 화려한 금구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석진 명장은 이 전주장을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Table 1).

3.2. 후기

명품(名品), 명작(名作), 명화(名畫), 명당(明堂), 명창(名唱) 그리고 명장(名匠) 등 앞에 ‘명(名)’자가 붙은 것들은 최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가장 각 분야에서 으뜸이라고 인정하는 대상이다.

전주시에는 공예명인관이라는 전시장이 있다. 조 명장의 생전에 이곳에서 여러 작품을 전시를 했었다. 전시 되었던 조 명장의 작품의 세부 제작기법 모두 전통방식 그대로였다. 그러나 디자인은 전통에서 벗어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를 지녔다. 그는 전통을 탈피했다기보다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생각 하에 연구를 계속했었다. 전주시는 전통공예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를 키운다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조석진 명장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가 아직도 생존했다면 이 프로젝트는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크다(Table 2).

4. 결 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文)을 무(武) 보다 우대하는 사회적 기류가 있어,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학력이나 신분 보다는 기능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풍토로 말미암아 기능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기능과 능력 위주의 사회가 조성되었다.

대한민국명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술을 지녔고, 그 기술 또한 인정받는 사람이다. 가구분야의 조석진 명장 역시 최고의 기술을 지녔으며, 지역 색이 뚜렷한 전주장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전통가구와 현대가구를 잇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

1953년 11월 5일, 전북 완주군에서 조석진 명장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 전주의 안은성 씨 밑에서 6년간의 도제 생활을 하였다.

그 후 1972년 제2회 전북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을

Table 2. The Late Works of Masters Cho Seok Jin

작품의 명칭/규격/재료	작품 이미지	작품 내용
<p>소형 서랍장 425 × 200 × 65 mm (먹감나무, 오동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장은 먹감나무와 서랍 내부를 오동나무로 구성한 높이가 낮은 서랍장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가구나 기물에 올려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가구이다. 네 곳의 연귀맞춤 속에는 주먹장이 숨어 있어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다. 서랍의 전면부는 장 안으로 밀어 넣어 시원한 형태를 구성하며 알판에 부착된 손잡이는 알판의 높이와 같이 세로로 배열하여 면 분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거실장 2,000 × 500 × 610 mm (흑단, 오동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칸으로 나뉘 상하로 3단을 배열한 이 거실장은 서랍 하나의 규격이 약 450 × 150 mm로 웬만한 기물이 수납이 가능한 매우 큰 거실용 서랍장이다. 목재는 변재가 들어 있는 흑단으로 마치 우리 전통의 먹감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한층 한층의 서랍에 나뭇결을 맞춰 큰 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짜임새 있게 느껴진다. 다리부분은 마치 창호를 연상 시키듯 여백을 두어 시원한 감을 연출한다.
<p>거실장 2,400 × 550 × 800 mm (부빈가, 오동에 낙동, 천연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동나무의 표면을 인두나 토치로 지진 후 벗질 등으로 문질러 약한 부분은 들어가고 단단한 부분의 나이테는 도톰하게 살아나는 기법으로 옛 전통기법인 낙동법을 적용한 서랍과 수납공간을 지니고 있는 거실장이다. 서랍은 상하 두 개씩 총 네 개가 구성되어 있고, 서랍의 앞판은 부빈가의 표피부분을 사용하여 자연감을 더하고 있다. 위 아래층의 서랍 좌우에는 같은 크기의 여백을 각각 두어 수납의 용도와 함께 시각적 명쾌감을 주고 있다.
<p>서랍장 640 × 450 × 1,295 mm (흑단, 오동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의 골재를 제외한 서랍의 전면부 전체를 흑단으로 처리한 서랍장으로 상층의 2열 8개의 작은 서랍과 하단의 4열 넓은 서랍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상층 2열의 서랍은 복판을 중심으로 흑단의 무늬결을 좌우 대칭으로 사용하였고, 하단의 4열은 흑단의 변재를 알판 윗부분에 각각 배치하여 무늬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랍과 골재가 만나는 각 부분은 숨은장부축맞짜임으로 견고하게 짜맞춤되어 있다. 서랍장 상판과 좌우측판은 오동판을 붙여 그슬려 결을 강조한 낙동법의 제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랍장의 하단부 다리는 서랍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같은 공간을 두어 답답할 수 있는 전체의 면 분할을 대신한다.
<p>4층 사방탁자 600 × 500 × 1,800 mm (흑단, 오동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4층 사방탁자는 전형적인 조선조 사방방가구를 기반으로 한 사방탁자로 중앙에 서랍을 배치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골재를 제외한 천판과 각각의 층 넓은 낙동법을 사용한 오동나무 판재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의 서랍은 앞판을 흑단을 내부는 오동나무로 제작하였다. 사방탁자의 네 기둥과 천판이 만나는 부분은 삼방연귀짜임으로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튼튼한 맞춤기법을 적용하였다. 기둥과 각 층널이 만나는 부분도 연귀축짜임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었고, 기둥과 족대는 장부축짜임이 적용되어 우리의 전통 목가구의 맞춤기법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

To be continued

Table 2. Continued

작품의 명칭/규격/재료	작품 이미지	작품 내용
<p>사방탁자 600 × 400 × 1,900 mm (흑단, 오동에 낙동, 천연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가 1,900 mm인 이 사방탁자는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눠 위아래는 열린 공간으로 두어 완상품(玩賞品)이나 필요한 기물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가운데 부분은 좌우로 5개 씩 총 10개의 서랍을 배치하였다. 사방탁자의 골재와 서랍의 전면 알판을 흑단으로 처리하였고, 각각의 층널은 오동나무판재를 붙여 그슬러 결을 도드라지게 만든 낙동법을 사용하였다. 사방탁자의 천판과 네 기둥의 접합 부분은 삼방연귀짜임으로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고, 기둥과 층널의 접합부분은 만나는 연귀촉짜임을 사용하여 외부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견실함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p>8층 사방탁자 600 × 400 × 1,900 mm (흑단, 오동에 낙동, 천연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사방탁자는 대부분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같은 반면 이 사방탁자는 너비 600 mm에 깊이 400 mm로 제작된 전통사방탁자의 변형으로 현대의 주거 공간에 맞게 그 크기와 구성을 달리하여 각층을 8개나 두었다. 각 층에는 높이 얇은 완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빈 공간을 두어 여백의미를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된 듯하다. 재료의 사용으로는 골재는 흑단을 층널은 낙동을 한 오동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흑단과 색상을 맞추었고, 오동의 결을 강조하였다. 맞춤기법으로는 기둥과 쇠목이 만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이곳에 사용된 짜임은 견고한 숨은연귀촉짜임이 적용되어 있다.
<p>서랍장 1,930 × 400 × 890 mm (흑단, 오동에 낙동, 천연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로 2,000 mm에 가깝게 길게 배열한 흑단 서랍장으로, 높이 또한 890 mm인 꽤 큰 규격으로 좌우로 6칸 위아래로 5칸을 배열하여 서랍의 개수가 총 30개를 지니고 있는 대형가구이다. 맨 아랫부분의 다리는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구성하고 있어 흑단의 어두운 무게감을 적절히 분배하고 시각적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랍에 사용된 흑단은 변재를 잘 활용하여, 전통가구에서 보이는 먹감나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였고, 이를 계기로 1973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2년간의 노력 끝에 1975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가구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한국선수로는 국제대회 가구분야에 우승하는 첫 번째 기능인이었다. 1988년 제1회 명인대회에 목재 수장분야에 출전해 이 부문 최고의 기능인임을 재확인하면서, 이 분야 국내 최초의 명인인 가구분야 1호 명장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많아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를 발굴해 입상시키는 지도력을 보였다. 1998년에는 장인에게 더없이 큰 영광인 무형문화재(전북)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후학을 양성하며

작품 활동에 몰입하고 있던 중 2009년 5월 위암3기 판정 받고 치료 후 어느 정도 완쾌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병인 위암으로 결국은 2013년 7월 19일 60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다.

조석진 명장은 조선 목가구 전북지역의 명맥을 이어왔던 안은성, 조갑근, 조석진으로 이어지는 전통공예의 원형을 간직한 인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과 명장대회의 수상실적으로 이미 전통공예계에 이름을 드러낸 명인이다.

고 조석진 명장의 생전의 작품을 통하여 살펴본 그의 삶과 그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진 군이 대한민국명장이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통하여, 노력과 집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대한민국목재수장명장(가구분야) 1호인 조선진 명장의 성장기, 완숙기 그리고, 그의 목가구 제작 방법 등을 통하여 그가 명장과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에 그가 추구 했던 정신세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조선진 명장의 작품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연구 분석하여, 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이야기거리인 “시간을 건널 수 있는 날개를 나무에 달아주고 싶다.”라는 그의 희망과 목가구에 대한 열정을 파악하였다.

과거의 전통이 현대 속에 함께 하는 시대 상황에 명장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된 본 논문은 목공예·가구 분야 명장 작품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었으며, 향후 타 종목의 대표 명장의 사례로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공예방식을 고수하면서 현대화를 함께 추구한 대한민국가구명장 고 조선진 명장의 작품 성향을 통하여, 그가 추구한 전주장의 계승과 과거와 현대의 공존인 그의 작품세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2015. 대한민국 명장의 작품성향에 관한 연구 -목공예 명장 1호 유석근. 한국가구학회 26(2): 154-162.
-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04, 114쪽.
- 호암갤러리. 2002. 조선목가구대전. 호암미술관. 15, 225쪽.
- http://www.onnlife.or.kr/?SITE=11&MENU=111011&ACT=RD&page=&u_inx=209
- <http://cafe.naver.com/nori2006>
- <https://www.youtube.com/watch?v=GWXeZxXRzMk&feature=youtu.be>
- <https://www.youtube.com/watch?v=ifDWN5TmMMc&feature=youtu.be>